

• 7 월 속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새 314 장 / 통 512 장)
3. 시작 기도: 속장 또는 속원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6:45-52

45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해쳐 보내셨다.

46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47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셨다.

48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49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50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51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52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뎠다.

6. 본문의 내용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 벳새다로 보내시고, 자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밤중에 거센 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고, 예수님은 밤사경(새벽 3 시 무렵),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라 착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고, 그 순간 바람은 멈추고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의 정리가 아니라,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다스리시는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사역을 마친

후 언제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적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기적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고, 마음이 무뎌져서 신적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삶의 풍랑 속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뢰해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향한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7. 나눔

- 1)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느껴졌던 ‘풍랑의 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고,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나요?
- 2) 본문 52 절에서 제자들이 마음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이제까지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 한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8. **합심기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 또는 속원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